

더 이상 죽을 수 없다..금속노조, 반복되는 한화그룹 중대재해 규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폭발로 5명 사망 참사.. “이윤보다 생명, 무기보다 사람이 먼저다” 경영책임자 처벌 촉구



금속노조가 올해 들어서만 10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한화그룹을 향해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이윤을 챙기는 살인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강도 높게 규탄하고 나섰다.

금속노조는 2일 오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중대재해 참사와 관련해 한화자본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한화 본사 앞에서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하루 전인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대형 폭발 참사로 인해 또다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은 것에 대한 금속노조의 긴급 대응이다.

첫 발언에 나선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방산의 대표 기업으로 무기를 만들어 돈을 벌고 있지만, 정작 현장 노동자들은 반복되는 폭발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도 같은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고, 8년간 무려 13명이 죽어 나갔다”며 “당시 수백 건의 안전관리 위반이 적발됐음에도 한화는 국가보안시설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안전관리 상황을 감춰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상만 금속노조 부위원장 역시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정 부위원장은 “20대 젊은 계약직 노동자가 정규직의 꿈을 안고 출근했다가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다”며 “회사는 ‘사망 사고가 날 자리가 아니다,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방위산업체라는 특수성과 국가 보안을 이유로 노동조합의 안전 점검 활동을 가로막고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한화오션 등 한화그룹 전 계열사에 만연한 안전보건 체계의 붕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동규 금속노조 경남지부 부지부장은 “올해 1월 거제와 광양, 3월 광양, 5월 고양에 이어 6월 1일 대전까지 한화그룹 내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는 우연이 아니라 생명보다 이윤과 생산을 앞세운 결과이자 기업의 명백한 안전관리 실패”라고 규정했다. 이 부지부장은 특히 한화오션이 안전사고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개선을 요구한 노동자들을 중징계하려는 행태를 강하게 꼬집었다.

김명기 노조 경남지부 한화창원지회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김 지회장은 “사고 직후 사측은 해당 공정이 ‘고위험 작업이 아니었다’는 망발을 내뱉었다”며, “가장 위험한 화약을 다루는 공장조차 철저한 안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도대체 대한민국 어느 현장이 안전하겠느냐”고 사측의 안이한 안전의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사고 원인 조사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전면 보장할 것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체 사업장의 안전을 전면 재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유철 노조 경남지부 한화오션지회장은 “한화자본이 인수한 이후 지금까지 8명의 노동자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며 “정작 책임을 져야 할 경영진과 관리자들은 처벌을 피하고 영전하는 반면, 시키는 대로 일한 노동자들만 중징계 위원회에 회부되는 썩어빠진 마인드로는 결코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속노조는 ▲경영책임자 구속 및 중대재해 처벌법 엄격 적용 ▲사고 원인 조사 과정에 노동조합의 참여 전면 보장 ▲참사 발생한 대 전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실시 및 화약 취급 전 사업장 가동 중지와 전면 재점검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징계 행위 중단 및 정부 차원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고, “돈보다 생명이 먼저고, 무기보다 사람이 먼저다”라며 한화그룹이 잘못된 안전 경영 마인드를 바꾸고 올바른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포했다.